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12월 13일(주일) 제1323호

평안하라 강건하라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 이레 기도회’
12월 14일~1월 2일 오전 6시, CGNTV, 유튜브, Zoom
이재훈, 이동원, 홍정길, 유기성, 이인호 목사 등 메시지

12월 14일(월)부터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 이레 기도회’가 시작된다. 세 이레 기도회는 ‘평안하라 강건하라’를 주제로 12월 14일부터 2021년 1월 2일(토)까지 오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세 이레 기도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앞에서 한국 교회가 함께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는 장(場)이다. 다니엘이 역사의 아픔을 끌어안고 세 이레(3주) 동안 슬퍼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과 강건을 경험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이 시대의 참담함을 슬퍼하며 평안과 강건의 은총을 간구할 예정이다.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 이레 기도회에서는 김경진(소망교회), 김승욱(할렐루야교회), 김운성(영락교회), 김은호(오문교회), 김형준(동안교회), 박성민(CCC대표), 박은조(은혜샘물교회 원로), 박종길(서빙고 온누리교회), 유기성(선한목자교회), 이동원(지구촌교회 원로), 이인호(더사랑의교회), 이재훈(온누리교회), 정갑신(예수향남교회), 주승중(주안장로교회), 한기채(중앙성결교회), 홍정길(남서울은혜교회 원로), 화종부(남서울교회) 목사 등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 17명이 메시지를 선포할 예정이다.

세 이레 기도회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CGNTV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면 된다. CGNTV에서는 매일 밤 9시 세 이레 기도회 실황을 재방송한다.

Zoom(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사전신청(<https://forms.gle/vEigQKCRQDfukNZL8>)을 하면 휴대폰 번호로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와 비밀번호를 발송해 준다. 이때 사용하려는 단말기에 Zoom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Zoom으로 세 이레 기도회에 참여할 때는 예



티켓을 지켜야 한다. 외부에 링크가 공유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Zoom에 접속할 때 비디오를 활성화해야 한다. 성경책(개역개정)을 반드시 준비하고, 바른 옷차림으로 참여해야 한다. 기도회 시작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 온누리교회 모든 새벽기도회는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 이레 기도회로 대체된다.

/ 정현주 기자



*Zoom 사전신청 QR코드

12월 28일까지 영상 예배 전환

CGNTV나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지난 12월 7일(월)부터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당 예배가 영상 예배로 전환됐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교회의 적극적인 대처이다. 온누리교회는 성도들의 안전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오는 12월 28일(월)까지 3주 동안 모든 예배당 예배(새벽기도회 1~2부, 주중예배, 주일예배)를 영상 예배로 전환한다. 월요치유집회, 경배와 찬양, 금요회복예배, 금요철야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않는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예배를 CGNTV나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드려야 한다.

12월 28일까지 예배당 출입 인원이 한 층당 20명 이내로 제한된다. 인원 제한을 지키면서 개인기도는 드릴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인원 제한을 지키면서 교회에 나와 개인기도를 할 수 있다. 개인기도를 할 때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방문 일지 작성이나 QR코드를 찍어서 출입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CGNTV 특집 다큐 ‘길 위의 노래’

12월 13일과 20일 오후 3시 20분 방송

CGNTV가 12월 13일(주일)과 20일(주일) 오후 3시 20분 특집 다큐 ‘길 위의 노래’를 방영한다. 가수 이무송, 노사연 부부, 바리톤 김주택, 가수 박기영, 범키 등이 출연한다.

12월 13일 방송되는 ‘길 위의 노래’ 1편에서는 코로나19로 국내에 체류 중인 선교사, 기록적인 폭우로 온 마을이 잠겨버린 시골 교회의 사연을 소개한다. 바리톤 김주택이 사역지에

가지 못하는 선교사와 그 가정을 위로하는 찬양을 한다. 가수 이무송, 노사연 부부는 직접 수해를 입은 마을을 찾아가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12월 20일 방송되는 ‘길 위의 노래’ 2편에서는 가수 박기영과 범키가 출연한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대학청년부 ‘사랑앓나눔사역’

불우이웃 및 차상위계층 1천 가구 지원

대학청년부 사랑앓나눔 사역이 12월 19일(토)과 26일(토) 실시된다. 서울 시내 불우이웃 및 차상위계층 1천 가구에 쌀과 반찬, 생필품(햄살, 마스크, 라면, 주방용품, 샴푸세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대학청년부 사랑앓나눔 사역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최소 인원이 참가해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된다.

지난해 사랑앓나눔사역에는 대학청년부 11

개 공동체 소속 청년 1,070명이 이웃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작은 선물과 복음을 전달했다.

사랑앓나눔사역은 서울 전역에 있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나눠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대학청년부의 대표적인 겨울사역이다. 지난 2012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 홍하영 기자

부천 온누리교회 창립 18주년

12월 13일(주일)은 부천 온누리교회가 창립 18주년이다. 2002년 12월 15일 창립한 부천 온누리교회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 나라와 지역을 위한 선교적 사명을 실천하는 교회’를 표방하며 사역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전로 589(상동)에 위치해있

다. 현재 성도 3,300명이 출석하고 있다.

윤길중 목사(부천 온누리교회)는 “지나온 시간 동안 부천 온누리교회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도가 연합하는 행복하고 따뜻한 교회로 세워져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제직회·공동의회 연기

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해 연기됩니다. 다음 제직회·공동의회 일정은 추후공지합니다.

12월 13일 예정이었던 제직회·공동의회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윤리학, 상대적 도덕률의 문제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윤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누가 도덕률을 만드는가?”이다. 신인가, 아니면 신의 자리를 차지한 인간인가? 유신론에서는 신,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이 만든다고 할 것이다. 유신론과 인본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도덕률의 근원을 어디에 의존하느냐이다.

인본주의자는 기독교가 제시하는 절대적 도덕률을 거부한다. 초자연적 존재가 제시하는 십계명과 같은 도덕률이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너무 억압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1933년, 1973년, 2003년 세 번에 걸쳐 발표된 ‘인본주의자 선언-I, II & III’을 통해 그들은 인본주의가 윤리적임을 주장하였다. 절대적인 도덕률의 기반이 없는 도덕성이 과연 가능할까? 인본주의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본주의자의 윤리>라는 책에서 그들은 절대자 없이 보편적 도덕성을 정의하려 할 때 겪는 어려움을 보여 주고 있다.

“개인의 이익이 선악의 기준인가 혹은 다수의 이익이 그 기준인가? 선과 악은 마음의 표현인가 머리의 표현인가? 도덕성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이 행위의 의도인가 결과인

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인본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도덕률에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을 때는 왜 꼭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신이 없다고 믿는 그들은 절대적 도덕률의 근원을 제시할 수 없기에 상대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인본주의자들은 상대적 도덕률 아래서 선악을 판단하기 위해 이성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이성은 진화의 과정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인간에게만 생겨난 것이며, 인간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도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이 원리인 진화론과 윤리를 결합해야만 하는 난관에 봉착한다. 심지어 “투쟁이나 전쟁은 생물학적 필요이며 더 나은 상태로 우리를 이끈다”는 진화론적 결론이 윤리와 결합해야만 할 상황이 되면 이성이 도덕률의 근원이라는 가정은 힘을 잃고 만다. 이처럼 기댈 근원을 상실한 상대주의 윤리는 주어진 상황마다 그 기준을 논의, 검토, 선택해야 하는 상황윤리로 흘러가게 된다.

심지어 폴 커츠는 “도덕적 원칙들은 실용적 가치를 실험해 보고, 그 결과에 의해 선택할지 말지를 판단할 가설로 취급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의 무제한적인 행복추구의 욕구는 어떤 도덕률의 제약이나 법적인 처벌 없이는 효과적으로 제어될 수 없다. 따라서 도덕적 상대주의 때문

에 생긴 윤리적 공백은 힘을 가진 개인의 감정적 충동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범신론적 세계관을 가진 뉴에이지는 모든 것에 신성이 있고 나에게도 신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세속적 인본주의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듯 방법은 다르지만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는 것은 동일하다. 그래서 뉴에이지를 ‘우주적 인본주의’(cosmic humanism)라고도 한다. 이들은 브라마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윤리적 제한요소도 불필요한 제약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평가 혹은 판단하는 일체의 행위를 멈추고 모든 다른 관점들을 포용하고 가르친다. “네가 옳다고 느끼는 것을 따라 너의 현실을 창조하라”가 뉴에이지 신조이다. 스스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일부일처제,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혹은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것이 나에게서는 옳다고 생각되면 어떤 선택이든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설립한 상대적 윤리이며 자율적으로 자기 윤리를 디자인해 간다.

이 같은 개인의 자율성은 모든 면에서 상대주의를 추구하는 뉴에이지에서 주장하는 절대적인 권고이다. 이 자율성은 가치 판단의 권위를 자기 자신에게 둔다. 개인이 자율권을 획득할 때 그들의 내적 가치는 상승하고 그렇게 된 개인은 더 고등한 의식을 탐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외부에서 자율권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면 내면의 진

실과 접촉하는 개인의 능력이 방해받는다 고 믿는다. 그러므로 성적으로 개인을 제한하는 전통적 성윤리도 완전히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에이지에는 절대적인 선악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각 개인이 자율적으로 정한 선악이 있을 뿐이다. 심지어 선과 악이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데이빗 스펡글러는 “그리스도는 루시퍼와 같은 세력이다. 루시퍼는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간을 준비시킨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라면 선악의 기준은 사라져 버린다.

기독교인은 인본주의자들의 도덕적 상대주의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윤리의 궁극적인 원천이시고, 우리가 그 자리를 취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기독교인에게 도덕적 거룩함 추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다. 기독교인은 도덕적 상대주의와 결코 함께할 수 없다. 절대적 도덕률을 무시하고 상대주의를 택하는 것은 도덕이란 이름 아래에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 오히려 절대적 도덕률이신 하나님을 직면할 때 비로소 자신의 선행에 대한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정당화를 포기하고, 스스로가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겸손하게 회개하게 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행 이가 없다.

묵상: 나의 삶에서 도덕적 상대주의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가정문제, 이렇게 해결합시다!

진짜 좋은 아버지의 ‘권위’

인간은 사회적 존재고 가정은 사회화를 경험하는 곳이다. 사회화란 한 개인에서 사회인으로 성숙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 삶에서 이타적 삶으로 나아가는 성숙의 과정이다. 사회화는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하고 적합한 삶의 태도, 가치관, 언어, 행동 등을 경험하고 배워가는 과정이다. 음식점에서 뛰어다니는 것은 삼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아무리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훔치거나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아갈 때 ‘인격이 성숙하다’고 말한다. 성숙한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사회화를 경험시키는 데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버지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진정한 권위를 통해 사회화를 배운다. 가정에서 어머니의 양육 방법과 아버지의 양육 방법이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어머니가 말을 많이 사용한다면 아버지는

몸을 많이 사용한다. 어머니가 개인적인 안전과 주의 깊은 행동을 강조한다면 아버지는 성취와 독립, 모험과 도전에 강조한다. 어머니가 감싸주고 위로하는 경향이 있다면 아버지는 행동 규칙을 정하고 지키도록 독려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의 진정한 권위를 인정할 때 사회화 과정을 잘 밟을 수 있는 것이다.

요즘 가정의 문제는 아이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늘 밖으로만 도는 아버지 때문에 아이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경험할 시간이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좋은 아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많은 아버지들이 좋은 아빠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는 아빠라고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친구 같은 아빠, 다정한 아빠의 모습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자라지만 권위를 경험하지 못한다.

우리는 많이 사랑해주고 통제를 적게 할 때 아이들에게 최상의 사회화가 이루어진다는 잘못된 신화를 믿고 있다. 그렇게 양육하면 아

이들은 상습적으로 나쁜 행위를 하게 되고, 자기중심적인 성인아이로 자라서 반사회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 자녀 양육에서는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랑과 권위 있는 통제를 함께 경험하고 자란 아이들이 다정하고 활기 넘치고 예의 바른 사회적 인물로 성장할 수 있다.

진정한 권위는 일관성에서 세워진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경우 어떤 때는 불같이 화를 냈다가 어떤 때는 묵인한다면 권위가 설 수 없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뢰 관계가 깨지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권위는 아버지 스스로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아이들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용납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그러나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을 행할 때는 단호하게 아버지의 권위를 경험시켜야 한다.

아이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어머니는 이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에 대한 훈련이다. 그것은 권위에 대한 순종이다.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다.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며, 진정한 용기를 보여 줄 때 권위가 세워진다.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권위주의에 빠지는 지름길이다. 권위주의는 권위를 무너뜨린다. 권위 있는 아버지가 진짜 좋은 아버지다. 권위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관계의 중요한 요소인 신뢰, 소속감, 관심, 안전감, 사랑을 경험하며 자랄 수 있다.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장)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5세에서 64세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 들어서 국가 경제 흐름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의 위기에 처한 나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하는 숫자보다 모태에서 사망하는 인원이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낙태만 하지 않았어도 우리나라 인구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이 땅에 있었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 번성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았다면 이런 나라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올해 6월까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4명입니다. 세계 출산율 21명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이 추세로 가면 2030년부터 인구가 줄어듭니다. 요즘 모이지 못하는 위기를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일 사람 자체가 없는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이 현상이 계속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적게 출산하는 나라가 되고,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되고, 결국 영국 옥스퍼드 연구소에서 발표한 대로 지구상에서 인구문제로 가장 먼저 소멸할 위험에 처한 국가가 됩니다. 매우 심각한 분석입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위정자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출산율이 더 저하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명령이 왜 주어졌는지, 이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겪는 위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위기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절벽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생명 축복의 명령에 담긴 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외형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상’을 영어로 ‘이미지’라고 번역하는데 원형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원형이

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과 특별한 교제를 나누며 교통하고, 연합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형상의 능력이 발휘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외에 자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자연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연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과의 교제를 통하여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입니다. 자연의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런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생물들에게도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땅에 충만해 보지도 않고 인구폭발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으면 먹을 것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등 불필요한 걱정과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하면서 인구를 제한했습니다. 어리석은 정책들을 통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땅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원형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 땅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인간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대리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역할을 하는 대리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간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인류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실제적인 이유

저출산의 위기를 분석하는 수많은 조사가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면 현실적인 이유들이 나옵니다. 물론 간절하게 결혼과 출산을 원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분들에

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들을 말합니다. 양육비가 많이 들고, 주거비가 상승하고, 실업 문제, 경기침체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문제들이 지금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런 문제들이 더욱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잘 키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기중심적인 가치관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유행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올로(YOLO)’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자기중심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딩크(Double Income No Kids)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부부의 삶만 살자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가치관 때문에 자녀를 향한 희생, 섬김, 하나님의 명령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모와의 불화로 인해 가정에 대한 기대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어느 청년부 목사님이 어느 부부와의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크리스천이면서도 과거 비혼주의자였는데 지금은 가정을 이루게 된 청년 부부와의 대화입니다.

“과거에 왜 비혼주의자였습니까?”

그때 청년 부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랐지만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행복한 모습을 보지 못해서 비혼주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왜 결혼하고 출산까지 하게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온누리교회 출석하고 행복한 가정을 많이 보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고 행복한 가정을 많이 보면서 ‘나도 가정을 이뤄서 결혼하고 출산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젊은 이들이 결혼과 가정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기성세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이 결혼과 출산, 저출산 문제까지 이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생명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이 어린 생명을 가축하게 다루고, 자신이 낳은 생명마저 죽음에 이르게 한 끔찍한 일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출산의 세 가지 가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출산의 가치를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출산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창조의 귀한 통로가 되고, 동참하는 은혜입니다.

또 출산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성인을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니까? 세상적인 세계관, 하나님 없는 세계관과 가치관,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성인을 예수 믿게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니까? 그런데 태어난 아기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10대 이전에 부모의 말을 잘 따르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 전도요, 확실한 전도입니까? 만일 자녀가 이교도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이슬람 교도들은 한 가정에서 자녀를 평균 여덟 명씩 낳습니다. 크리스천 가정은 한 명 낳을까 말까 하는데 이슬람 가정은 여덟 명씩 낳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이교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인이 많다고 하지만 언제 뒤바뀔지 모릅니다. 차세대 주일학교는 점점 감소하고, 이교도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도 따라갈 수 없는 속도입니다.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여덟 명씩 불신자들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전도는 출산입니다.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최고의 전도이자 선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 안에서 출산이 장려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또 출산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 영혼은 분명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아버지학교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심각한 죄에 연루되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참된 행복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14면에 계속〉

이슈진단

우리는 ‘비혼 출산’을 반대한다!

창조 질서 거스르고,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

지난 11월 방송인 사유리(일본인)가 자신의 SNS에 “한 아들의 엄마가 됐다”면서 비혼 출산을 고백했다. 그녀의 비혼 출산이 사회적 찬반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비혼 출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할까? 문지호 집사(한강공동체)가 비혼 출산이 왜 문제이고, 왜 반대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문지호 집사
(한강공동체,
의료윤리연구회 회장,
명이비인후과 원장)

최근 방송인 사유리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 소식을 알렸다. 초저출산 시대에 홀로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아기 엄마에게 축하와 지지가 이어졌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녀가 택한 비혼 출산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비혼 출산이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익명의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비배우자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AID)’이라 불린다. 본래 무정자증 같은 남성이 원인이 되는 불임부부를 위해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남편이 아닌 타인의 정자를 기증 받아 아내의 자궁에 주입하는 것으로, 동물 사육에 사용하던 기술을 인간에게 응용한 것이다. 국내 의료기관에서는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결혼을 안 한 사유리는 일본으로 건너가 시술을 받았다.

사유리는 낙태를 여성의 권리로 인정하라는 것처럼 “비혼 출산도 권리로 인정하면 좋겠다”고 했다. 마치 불법에 대항하는 정당한 어머니의 요구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말에는 아기를 내 권리로 선택 가능한 어떤 것쯤으로 여긴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낙태를 주장하는 자들과 똑같다. 태중의 아기는 독립된 생명인 아닌 나의 선택에 의해 없앨 수도 있고 낳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안타깝고 우려되는 사항은 정치권에서 국민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면서 자기결정권을 위한 비혼 출산 법제화에 나선다는 점이다. 과연 인식이 변하면 비혼 출산이 옳은 것이 될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비혼 출산의 다섯 가지 문제점

비혼 출산의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다. 태초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완전한 가정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먼저 아내가 되어 사랑받을 권리를 주셨다. 그 사랑의 열매로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여자가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낳게 하지 않으셨다. 자기결정권이라며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갖는 것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둘째, 사회 질서를 어지럽혀 가정을 무너뜨린다. 우리 사회의 근간은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가정이다. 결혼을 통해 성(性)윤리가 지켜지고 가정은 부부의 질서 속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양육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이 질서 속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헌법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비혼 여성의 출산 권리를 허용한다면 아내 없이 아기를 가지려는 남성의 요구도 허용해야 한다. 또한 동성애자 커플도 출산할 권리

넷째, 아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사랑에게는 부모를 알 권리가 있다. 인격을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기 때문이다. 아동 권리협약은 아동이 부모를 알 권리와 양쪽 부모의 공동 책임하에 양육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아빠의 기원을 모르면 아동기에 심각한 정체성 혼란이 온다. 나라에 따라 18세가 되면 정자 공여자의 신원을 공개하기도 하지만 친부에 대한 근원적인 단절감은 해소되지 않는다. 대부분 공여자는 신원 공개를 꺼린다. 호

한번 무너진 윤리의식은 고삐 풀린 망아지 같다. 2007년에는 정자뿐 아니라 아예 수정된 배아까지 판매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존엄성이 붕괴되고 있다. 배아를 사고파는 21세기 인신매매의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비혼 출산 법제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난임 가정에 인공 출산을 가능하게 한 보조 생식술(인공수정, 시험관아기 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다. 이 기술은 반드시 결혼한 부부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이 기준을 어기는 순간 창조 질서를 거스르게 되고 결국 사회 질서가 붕괴된다. 비혼 출산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기준을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양보하는 순간 인본주의 가치관이 온 나라를 점령할 것이다. 절대 진리를 잃으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권리라고 착각하게 된다. 낙태든 비혼 출산이든 권리라고 주장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인본주의는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시켜 동물 수준으로 만들어버린다. 자기결정권 때문에 나의 몸을 한낱 생식의 도구로 내어주게 되는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끊임없이 타락의 길을 걷고 있다. 성경 예언대로 일어나는 일이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자기결정권이라며 왜곡시켜 죄를 범하고 있다. 간통죄를 폐지시켜 성 윤리를 무너뜨렸고, 낙태죄를 폐지시켜 생명 윤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이제는 비혼 출산 법제화로 가족 윤리마저 망가뜨릴 참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혀 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과 가정을 모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게 하려고 한다. 머지않아 이 나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시켜 성도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성도들은 사탄의 도전에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요, 세상 권세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며 이 땅에 기준을 세워주어야 한다. 거짓말하는 자들과 싸우며 이 나라와 다음세대를 지켜야 한다. 예언대로 성도들은 이미 정해진 승리의 길로 가고 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인내하며 전진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혀 가정을 무너뜨리고,
안정성 문제가 있고, 아동 권리 침해하며,
우생학과 상업화를 불러일으키는
비혼 출산 법제화를 반대해야 한다”



를 인정해야 한다. 비혼 가정은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과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와 거리가 멀다. 건전한 가족관을 붕괴시켜 가정과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셋째,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정자 기증은 크게 어렵지 않다. 음란물이 틀어져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정액을 채취하면 된다. 정자 제공자에 대해서는 혈액형과 함께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성병 검사만 진행할 뿐이다. 남성의 질병 상태나 신체적·정신적 결함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실제로 지난 9월 미국에서는 정신병이 있는 전과자가 스스로를 천재라며 정자를 기증해 36명의 아빠가 된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비혼 출산은 의학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동일 기증자에 의한 자녀 수가 많아 질 경우 근친혼이 발생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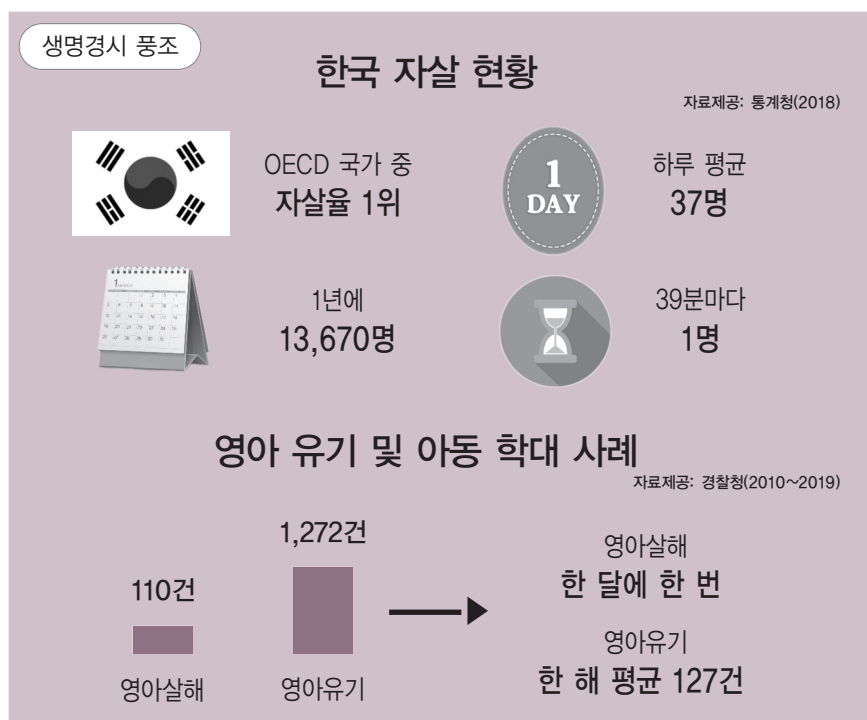
주 정부가 정자 기증자 신원 공개를 추진했을 때 어느 60대 교수가 24명의 생물학적 자녀들이 찾아올까 봐 크게 불안해한다고 한 매체가 보도하기도 했다.

다섯째, 우생학과 상업화를 막을 수 없다. 대한의사회 윤리 지침은 정자와 난자의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한다. 그러나 미국과 덴마크 같이 세계적으로 정자를 수출하는 나라는 사정이 다르다. 질 좋은 정자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증자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정자은행은 단순히 불임부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성별은 물론 생김새와 키, 머리카라 색까지 맞춤형 정자를 제공해서 2세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기증자들을 까다롭게 선발하고 수백에서 수천 달러에 정자를 판매하고 있다.

생명경시 풍조 바로잡아야 산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사(生死)를 결정하신다

피조물인 인간이 생명에 값어치를 매길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인간이 생명에 값을 매기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낙태, 비혼 출산, 안락사, 유전자 복제, 아동 학대, 반려동물 유기, 심지어 자살까지... 이 모든 상황과 사건의 이면에는 생명을 값으로 따지는 생명경시 풍조가 담겨있다. 만연한 생명경시 풍조를 바로잡아야 살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사(生死)를 결정하시기 때문이다.



생명경시 풍조를 보여주는 사건들

“아이를 20만 원에 팝니다.”

지난 10월 국내 중고물품거래 애플리케이션에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강보에 싸인 아이 사진 2장과 함께 올라온 이 글은 제주도에 사는 한 미혼모가 올린 글이었다. 그 미혼모는 “산후조리를 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일에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껴 입양기관에 알아보았는데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려서 이런 게시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지난 11월에는 전라남도 여수에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다. 쓰레기 더미 같은 집에 방치된 2명의 아이(7세 남아, 2세 여아)를 발견했다. 그 집 냉장고에서는 생후 2개월로 추정되는 남아의 사체도 발견됐다. 문힐 뻔했던 사건이었는데 이웃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영아 유기 및 아동 학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2010~2019년) 발생한 영아살해 110건, 영아유기 1,272건이다. 한 해 평균 영아유기가 127건, 영아살해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출생 직후 유기된 영유아 대부분이 사망했다. 지난해 3월 무궁화호 열차 화장실 변기에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사건, 지난 6월 성북구 한 등산로 인근에서 등산객에 의해 비닐에 쌓인 채 땅에 묻힌 영아 시신이 발견된 사건, 지난 7월 서울 관악구 한 빌라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로 추정되는 남자아이 시신이 발견된 사건

등이 이를 증명한다.

이외에도 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9세 소녀가 건물 지붕을 타고 탈출한 장년 아동 학대 사건, 여행용 가방에 갇혀 학대 당하다 숨진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건, 입양한 아기를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 차마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잔인하고 천인공노할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로코에서는 자식을 낳기만 하면 바로 팔아넘긴 여성이 쇠고랑을 찬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처음에는 혼전성관계를 금지하는 이슬람법이 두려워서 신생아를 매매했는데 몇 번 하다 보니 돈맛이 들어서 반복했다고 한다. 생명경시 풍조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생명경시 풍조는 동물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반려동물 유기 현황이 이를 반증한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500만 명에 육박한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만큼 많이 버려지고 있다는 데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9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보호 조치된 유실 및 유기 반려동물이 13만5,791마리다. 전년보다 12% 증가한 수치이다. 반려동물 유기는 명절이나 여름휴가 등 연휴 기간 전후로 급증한다. 지난해 유기동물 수는 휴가철인 7~8월이 2만 8,062건(20.7%)으로 가장 많았고, 추석 연휴가 있었던 9~10월이 2만6,067건(19.2%)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려동물을 기르다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물건처럼 쉽게 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말한다. 참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의 것이라고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마 10:29).

가장 심각한 생명경시 풍조 ‘자살’

생명경시 풍조를 가장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자살’이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다. 10년 넘게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1년에 1만3,670명이다. 하루 평균 37명, 39분마다 1명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한국의 높은 자살률에 대해 외국 방송에서 특집 기사를 내보냈을 정도다. 아랍권 최대 위성방송인 ‘알자지라’가 지난 2015년 ‘자살의 나라, 한국’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보도하며 그 원인을 세대별로 분석했다. 한국 청소년은 경쟁이 심한 사회에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대학 입학에 대한 압박감, 중년층은 주로 개인의 경제문제에 대한 고민, 노인들은 전통적 가족 단위의 붕괴에서 비롯된 고립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다고 분석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 양극화,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과 고독, 치열한 입시경쟁과 취업난 등을 한국의 높은 자살률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런데 살기 힘들다고,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돈이 없다고, 외롭고 쓸쓸하다고, 나이 들었다고 스스로 목숨을 버려도 될까? 결코 아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솔로몬, 엘리야, 요나, 사도 바울 같은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도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을 느꼈다. 솔로몬은 “사는 것이 싫어졌다”(전 2:17)고 말하기도 했고, 엘리야 선지자는 두려움과 우울증에 빠져 죽기를 바랐다(왕상 19:4). 요나는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나서 죽기를 원했다(욥 4:3, 8). 사도 바울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후 1:8)고 고백했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자살하지 않았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전 12:13)는 교훈을 남겼고, 엘리야는 천사의 위로를 받고 씬을 가진 다음

새로운 사명을 받았다. 요나는 하나님께 책망과 꾸지람을 받았고, 바울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후 1:9)는 깨달음과 함께 주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음을 배웠다고 고백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창 1:27)을 해치는 살인에 대해 십계명 중에서 6계명으로 언급할 정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출 20:13). 자살은 살인과 동일하다.

생명을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오직 하나님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보다 많고 강대한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히브리 산파에게 명해 이스라엘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라고 명령했다.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이 학살당할 위기에 처했다. 지엄한 왕의 명령이었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남자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한 세상에서 교회와 우리 자신, 자녀들을 지키는 길이다.

이기복 목사(바른인권여성연합 상임대표)는 지난달 11월 29일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는 주제로 설교하며 이렇게 당부했다.

“교회가 답이 되어야 한다. 한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이야기해야 한다. 회피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한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은 선하고 좋은 것이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못 생명의 피를 함부로 파괴하고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셨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창 9:5~6).

오직 하나님만이 생사를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욥 1:21) 기억해야 한다. 생명에 값어치를 매기는 순간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진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동작공동체,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드림온플러스 캠페인, 미얀마 난민사역에 앞장

여기 일본 선교와 난민들을 섬기는데 앞장서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동작공동체이다. 동작공동체 성도들의 뜨거운 선교 열정과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의 힘이 '섬김의 열매'를 맺고 있다.

동작공동체는 CGNTV와 러브소나타가 손잡고 일본 교회와 성도들에게 CGNTV 전용수신기(셋톱박스)를 후원하는 드림온플러스 캠페인에 가장 많은 다락방에서 참여했고, 김포M센터 인근에 재정착한 미얀마 난민들에게 겨울옷과 장난감 등을 모아 전달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동작공동체 사랑다락방 성도들이 김포M센터 근처로 이주한 미얀마 재정착 난민들에게 의류, 장난감 등을 전달했다.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다 하는 일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선한 일을 하고도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동작공동체 지체들을 가장 잘 웅변하는 것 같다. 동작공동체가 행하는 일마다 선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선한 영향력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드림온플러스 캠페인은 CGNTV와 러브소나타가 코로나19와 악화된 한일관계로 막혀버린 일본 선교를 이어가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인터넷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CGNTV를 시청할 수 있는 전용수신기를 후원하는 방식이다. CGNTV 전용수신기는 위성

안테나에 비해 설치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이용요금도 없다. 간단한 조작만으로 한 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언어로 CGNTV의 양질의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고 유익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드림온플러스의 유익을 선교지보다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IPTV로 송출되는 CGNTV 콘텐츠를 시청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이다. 위성방송이 제한된 국가에서는 CGNTV를 시청하려면 노트북과 TV를 연결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장비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화면으로 여러 명이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 따라서 드림온플러스 캠페인

페인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탁월한 선교를 할 수 있다. CGNTV 후원기확실에서 어느 공동체보다 적극적으로 드림온플러스 캠페인에 동참해준 동작공동체를 칭찬해달라고 거듭 부탁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동작공동체는 다락방 단위로 드림온플러스 후원을 해주셨어요. 공동체 구성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를 지원한다는 게 참 감사하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임현숙 집사(동작공동체)는 드림온플러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CGNTV 전용수신기 한 대를 후원했다. 일본 선교와 사역이 제한되고 있을 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국 성도님들은 예배당 예배가 제한되더라도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물론 예배당에 가지 못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지만, 선교지에 비하면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선교지를 돕고 싶는데 그 방법을 몰라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드림온플러스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으로 선교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참했습니다. CGNTV 전용수신기가 설치되는 일본 교회와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뻐할 때 같이 웃어주고 슬퍼할 때 같이 울어주자

김포M센터는 동작공동체 사랑다락방의 1다락방 1사역지다. 동작공동체는 수년째 김포M센터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주민에 배, 차세대, 한국어 학교 등을 섬기고 있다. 올해 김포M센터에는 아주 특별한 일이 생겼다. 김포M센터 주변으로 미얀마 재정착 난민들이 대거 이주를 한 것이다. 기존에도 미얀마에

서 온 이주민 근로자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59명이나 되는 미얀마 난민들을 섬길 기회가 생겼다. 마냥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벅차기도 했다. 그때 동작공동체 사랑다락방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줬다. 김포M센터 선교사들은 도움의 손길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다가와 준 동작공동체 사랑다락방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미얀마 재정착 난민들이 김포M센터 주변으로 이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인과 어린이까지 총 59명이었는데 기존에 섬기고 있던 이주민들과 성격이 조금 달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섬기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동작공동체 사랑다락방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동작공동체 사랑다락방에서는 우선 미얀마 재정착 난민들이 한국의 매서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겨울옷과 어린이용품 등을 모아 전달하기로 했다. 서성렬 대표장로(동작공동체)는 사랑다락방 성도들이 이주민과 난민들을 섬기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다고 고백했다.

“동작공동체 사랑다락방의 슬로건이 ‘기뻐할 때 같이 웃어주고 슬퍼할 때 같이 울어주자’입니다. 동작공동체 사랑다락방 지체들은 슬로건을 몸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미얀마 재정착 난민들에게 전해줄 겨울옷과 장난감 등을 모았는데 정말 깨끗하게 세탁하고, 다림질까지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순장님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후원품을 건넸는데 승합차 2대를 가득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동작공동체 사랑다락방 지체들의 아름다운 섬김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드림온플러스 QR코드

사역칼럼



류대우 순장
(동작공동체)

아제르바이잔과 스리랑카에 파견 간 적이 있다. 나는 해외를 나가면 꼭 그 나라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는데 아제르바이잔에서 만난 선교사님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 조그마한 스마트폰 한 대로 8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값비싼 인터넷 요금 때문에 아끼고 아껴가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스리랑카에 방문했을 때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규모가 있는 사역지인데도 복합적인 문제로 커다란 화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를

송출하는 일이 원활하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선교사님의 기도제목 중 하나가 커다란 화면으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을까.

드림온플러스 캠페인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생각난 곳이 아제르바이잔과 스리랑카였다. 선교사님과 성도들이 한결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CGNTV에 문의를 했는데 스리랑카로는 CGNTV 전용수신기 한 대를 후원할 수 있었고, 아제르바이잔은 드림온플러스 캠페인으로 도와주기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왜냐하면 아르메니아와 전쟁이 한창이었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CGNTV 전용수신기를 보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드림온플러스 캠페인에 대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있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섬기고 복음 전해야 한다

이번에는 동작공동체 사랑다락방 1다락방 1사역지로 섬기고 있는 김포M센터를 돕고 싶었다. 김포M센터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지에서 온 이주민 근로자들과 난민들을 섬기고 있다. 올해 김포M센터 주변으로 미얀마 재정착 난민들이 대거 이주했다. 순과 다락방에서 그들을 위한 겨울옷과 장난감을 모아 선물하자고 제안했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셨다. 생각보다 많은 선물이 모였다. 동작공동체 사랑다락방에서 모은 것만으로도 김포M센터를 가득 채울 정도였다.

미얀마 재정착 난민들을 위한 사역을 준비하면서 구자현 선교사(김포M센터)님께 아제르바이잔으로 보내려고 했던 CGNTV 전용수신기가 필요하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 구자현 선교사님께서 크게 반기시며 좋아하셨다.

그동안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CGNTV를 시청했는데 고장이 잦아서 불편했다고 하셨다.

CGNTV 전용수신기를 직접 사용해 보니 정말 편리했다. 리모콘 버튼만 누르면 각 나라 언어로 바뀌는 점이 가장 좋았다. 우리나라에 있다고 모두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라고 해서 꼭 그 국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 중동,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CGNTV를 시청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나는 집에서 항상 CGNTV를 틀어 놓는다. 다른 일을 하더라도 들려오는 말씀이 큰 은혜가 될 때가 많기 때문이다.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영혼들에게도 나와 같은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기도한다. 크리스천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명화로 읽는 성경

다윗은 몸 찬양의 선구자

티소의 ‘언약궤 앞에서 춤추는 다윗’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고려대 인문예술과정
주임교수)

도합 7번이나 아카데미상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연기파 배우 알파치노 7전8기 끝에 그에게 남우주연상을 안겨준 영화가 ‘여인의 향기’ (1992년)이다. 마틴 브레스트가 메가폰을 잡았던 이 영화에서 알파

치노는 퇴역한 육군 중령 프랭크 슬레이드 역을 맡아 열연했다. 슬레이드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시각장애인이다. 슬레이드가 한 레스토랑에서 처음 만난 도나(가브리엘 앤워 분)라는 여성에게 탱고를 추자고 제안한다. 주저하는 도나에게 슬레이드가 말한다. “인생과는 달리 탱고에는 실수가 없어요. 단순해요. 그래서 탱고가 정말 멋진 거죠. 만약 실수를 하면 스텝이 꼬이죠. 그게 바로 탱고입니다.”

두 사람은 ‘포르 우나 카베자(Por Una Cabeza)’라는 곡에 맞춰 멋들어진 탱고를 춘다.

뇌과학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뇌는 춤을 추고 싶어 안달이라고 한다. 우리가 리듬에 맞춰 춤을 추면 뇌는 공간지각, 균형감, 타이밍 등 복잡한 계산을 동시다발적으로 해낸다. 특히 춤을 출 때 우리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인 브로카가 활성화된다고 한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춤과 같은 몸짓 언어에서 발전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언약궤를 되찾아오고
신명나게 춤을 추는 다윗**

오늘은 제임스 티소(1836~1902년)가 그린 ‘언약궤 앞에서 춤추는 다윗’과 함께 사무엘 하 6장을 묵상해보자.

티소는 프랑스 출신이지만 근세 영국의 전성기였던 빅토리아 시대 귀족 여성들의 화려한 복식과 생활을 배경으로 한 그림으로 유명했다. 그러다 나이 50세가 넘어가면서 종교화에 폭 빠졌다. 그림도 이전의 화려한 스타일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기독교적인 신비주의를 질게 풍긴다. 오늘 소개하는 그림은 그가 말년에 그린 작품이다.

알다시피 다윗은 양떼를 지키며 하프를 타는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다. 야훼 하나님의 명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가 선지자 사무엘이었다. 사울 왕에게서 떠나간 성령이 다윗에게 임한 것이다. 이때부터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며 괴로움을 당한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하프 연주 소리를 들으면 그 아름다운 음악이 왕의 우울증을 진정시키는 효과



제임스 티소가 그린 ‘언약궤 앞에서 춤추는 다윗’ (뉴욕 유대인박물관 소장).

“

**미같은 다윗 내면의 진정성을 보지 못했다
본질적인 것보다 지엽말단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야훼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

가 있을 것이라고 진언한다. 그렇게 양치기 다윗이 궁정악사가 되었다.

악사 다윗의 예술적 감수성이 특출했던 모양이다. 현악기에 맞춰 낭송하도록 만들어진 성경의 시편 중에서 77편이 다윗의 창작이다. 하프가 다윗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지물이 된 까닭도 여기 있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온다. 거인 용사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

“누군가 나와 겨뤄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하지만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라!”

사울 왕은 골리앗을 물리치면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주고, 큰 재물도 내리겠다고 했지만 골리앗의 위세에 놀려 자원자가 없었다. 이때 어린 다윗이 나섰다.

“왕이시여! 저는 양치기로 있으면서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 가면 쫓아가 죽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는 물매와 조약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인다. 그의 전사로서의 용맹성은 훗날 사울 왕과의 싸움에서도, 수많은 싸움을 승리로 장식하며 예루살렘을 위대한 왕국의 수도로 만들 때도 유감없이 발휘된다.

왕이 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되찾아온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처음 만

들었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가시적인 징표였다. 언약궤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 때에도,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에도 변함없이 함께했다. 이렇게 중요한 언약궤를 적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왔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궤를 나르는 군사들 옆으로 수백 명의 밴드가 북과 쟁과리, 심벌즈와 하프 등 각종 악기들을 연주했다. 백성들은 열광했다. 소와 살진 양으로 제사 드린 다윗은 온 힘을 다해 덩실덩실 춤을 주었다.

제임스 티소는 환호작약하며 신명나게 춤추는 다윗의 뒷모습을 절묘하게 캐치했다. 비록 얼굴은 보이지 않고 춤사위가 세련되지도 않았지만,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다윗이 백성들과 더불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구도 상 정중앙에 배치한 주인공 다윗의 뒷모습을 잡은 것이 오히려 전체 분위기를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티소는 팔레스타인으로 여러 차례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주제로 연작을 발표하는 등 인생 후반기를 성

화를 그리는데 집중했다. 그의 그림은 다소 신비주의적 성향을 띠지만 그렇다고 그가 역사적 고증을 게을리 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고대 중근동에서 춤은 신앙의 한 표현이었다. 에봇(법의)을 입고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며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은 사제들이 행하는 성스러운 행위였다. 군주제 초기에는 왕도 사제의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춤추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의 눈에는 이런 모습이 영마뜩잖았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불만 하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다윗이 발끈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야훼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지 야훼 앞에서 기뻐할 것이요.”

인류학자 데즈먼드 모리스는 ‘리듬의 행복’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강렬한 리듬 활동과 관련된 특수한 종류의 행복이 있다. 비트가 들어간 인간 행동은 인간을 무아지경의 아찔한 감각에 빠지게 하는 잠재력이 있다. 모든 지적인 통제를 중단하고 리듬에 몸을 맡기면 희열의 파도가 몰려온다.”

다윗은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심리학적으로 다윗은 현자(sage)의 지성, 악사(musician)의 감성, 전사(warrior)의 야성을 두루 갖춘 ‘왕(king)의 원형’이다. 그는 야훼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서 합리적 지성, 전투적 야성 등을 옆으로 제쳐놓고 오로지 예술적 감성만으로 온몸을 던져 야훼를 찬양한다. 그는 몸으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티소의 그림을 보노라니 야훼를 의지한 다윗과 달리 자신의 힘만 의지했다가 망한 골리앗이 떠오른다. 미같은 야훼를 찬양한 다윗과 달리 자신이 찬양받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갈과 다윗은 오십보백보다. 미같은 다윗이 옷매무새가 흐트러질 정도로 춤을 추는 바람에 왕의 품격이 떨어졌다고 비아냥거린다. 미같은 찬양에 집중하는 다윗 내면의 진정성을 보지 못한다. 그녀는 외적인 실수에 연연한다. 본질적인 것보다 지엽말단에 집착한다. 미같은 아마도 “실수로 스텝이 꼬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탱고”라는 프랭크 슬레이드 중령의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다윗은 한술 더 뜬다.

“내가 이것보다도 더욱 체통없이 행동해 스스로 낮아져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들은 나를 우러러볼 것이요!”

그렇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야훼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삼상 16:7)고 하지 않았는가.

코로나19, '이주민과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스타트리 협동조합을 설립하기까지

어느 추운 겨울 날 인도네시아 예배에 아미르 형제가 찾아왔다. 무슬림이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했고, 재워줄 곳이 마땅치 않았다. 친구네서 자면 된다고 인 천까지 가는 아미르 형제를 보면서 마음이 짠했다. 몇 달동안 거처를 찾아 헤매다 경기도 오산에 방을 구한다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아미르 형제는 오산에 지내면서 나와 교제를 이어갔다. 아미르 형제가 안산에 있을 수만 있다면 더 가까워서 섬기며 복음을 전할텐데 아쉬움이 많았다. 예배를 드리고 형제자매들이 교제하는 공간, 때로는 숙소로도 사용할 수 있는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지인들에게 나눴다. 한 지인이 원룸이라도 구하라면 300만 원을 후원해 주셨다. 무슬림들은 안산 M센터를 교회로 알고 있어서 방문 자체를 꺼려한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올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

지난 7월 아미르 형제가 고향으로 돌아갔다. 말레이시아에서 14일 자가격리하는 동안 내가 선물한 성경을 읽고 있다고 연락이 왔다. 아미르 형제가 돌아간 뒤 외부 공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무슬림들과도 교제할 수 있다면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교회라는 공간 특성상 무슬림들과 교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스타트리 협동조합에 한국어를 배우러 온 무슬림 청년들과 이경원 선교사(가운데).

카페라는 공간을 활용하면 월세도 내면서 교제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에서 안식월을 보내고 있을 때 남동생이 커피기계를 만들어 사업을 하고 싶다며 투자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그 후 동생은 창업 오디션을 통과해서 커피기계 사업을 이어갔다. 나에게 좋은 자리가 있다며 카페 운영을 권유했다. 국내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안산M센터를 섬겨야 해서 시간적 여유와 금전적 여유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하게 하셨다. FA 선교사로 왔던 청년들이 카페 운영을 도와줘서 신학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카페는 무슬림 형제들이 오기에 아주 좋은 열린 장소가 되었다. 카페에서 참 많은 영혼들을 만날 수 있었다. 지난 2월 15일에는 카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 그리고 아미르가 떠나면서 안산 원곡동에 무슬림들을 위한 복음 전도의 공간이 생기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 자

리를 알아보다 이경숙 목사님이 넓고 깨끗한 장소를 소개해주셨다. 보증금은 여러 성도님이 후원해주셨다. 노규석 목사님께서 월세를 지원해주시겠다면서 카페에서 무슬림들의 직업교육까지 할 수 있는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주셨다. 창업 교육, 바리스타 교육, 한국어 공부, 제과, 제빵 교육 등을 통해 이주민들의 자립뿐만 아니라 선교의 기반을 마련할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

SNS공동체 청년들, 일만사역팀, 선교사님들, 인도네시아 아웃리치팀, 커피기계, 빔프로젝트, 간판, 블라인드 등 다양한 집기를 후원해주신 성도님들의 손길이 모여 '스타트리 협동조합'이 탄생했다. 지난달 스타트리 협동조합 오픈식을 하고 모임을 가졌다. 소방시설과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어 아직 카페로는 등록하지 않았고 이주민들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스타트리 협동조합은 벌써 이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고 있다. 흠어진 무슬림 결혼이주 여성들의 문에도 쏟아졌다. 매주 화요일이 휴일이라 한국어 교육을 못받았다는 인도네시아 무슬림 청년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 스타트리 협동조합이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전도자로 세우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기도한다.

/ 이경원 선교사(안산M센터 인도네시아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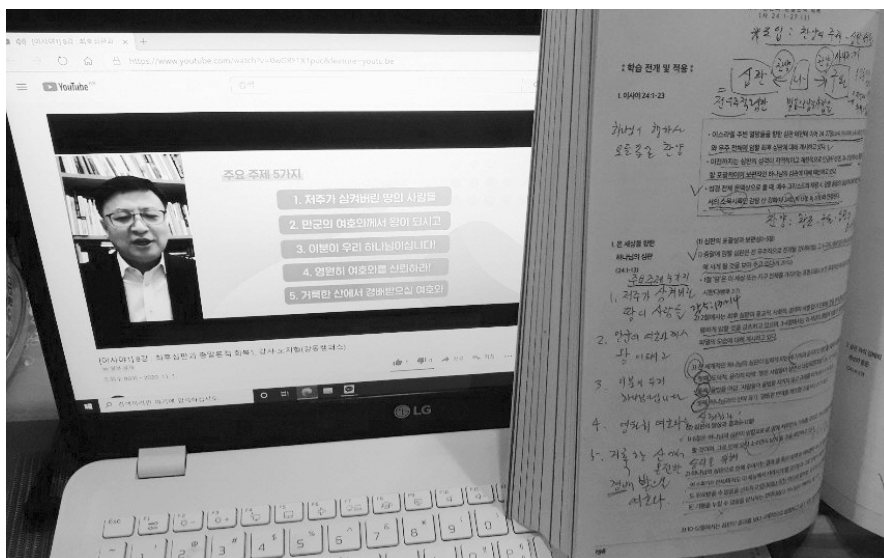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OBC 이사야 과정

나는 지난해 직장생활에 너무 지쳐있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OBC 과정에 참여하기에는 많은 망설임이 있었다. '과연 끝까지 결석하지 않고 수료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있었다. 그런 걱정과 염려, 게으름으로 이사야 전반부를 다루는 이사야1 강의를 수강할 기회를 놓쳤다. 이사야1 강의를 수강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던 차에 이사야2 강의가 시작되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이사야2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사야1 강의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커졌다.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이사야1 강의가 시작된다는 소식이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췄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시간을 더욱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내게 너무 유익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멈춰진 일상과 신앙에 변화가 필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강의를 신청했다. 이사야 강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줬다.

코로나19는 정년퇴직 이후 미뤄두었던 여행과 마음껏 즐기려던 취미생활의 계획을 무산시켰다. 대면 예배도 중단되어 하루하루 공허해지는 마음을 이사야서 말씀으로 채워나갔다. 이사야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일대일



오준복 집사(강동 온누리교회)가 작성한 온라인 OBC 이사야 강의 노트.

로 나아가는 영적 성장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온라인 OBC 이사야를 수강하면서 매 회 강의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대면 수업을 할 때 조원들과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강의가 종료되기만을 바랐던 시간을 떠올리니 이 시간마저 귀했다. 매주 스스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

눔을 할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하고 값진 기회였다.

매주 화요일 유튜브 강의를 올라오면 다른 성도들은 금세 과제를 제출했다.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내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했다. 나는 성격상 강의 내용을 요약하려면 두 번, 세 번 강의를 들은 후에야 겨우 몇 줄 적어

내려갈 수 있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씩씩했다. 부담되었던 그 시간이 어느새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 충만함을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 있었다.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다. 그 시대의 백성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교훈을 준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교만과 거만 등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한다. 또한 도전과 격려를 위한 소망을 주는 회복 메시지도 담겨 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구원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중 심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사야서를 바르게 읽고 배우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깨달았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면서 이사야서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고자 한다. 성숙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 오준복 집사(강동 온누리교회)

위기를 기회로!



코로나19, '기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허브대학부 '라이크 다니엘 프로젝트' 기도회

올해 2월 인도네시아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그곳에서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매일 기도훈련을 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웃리치에서 했던 대로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외롭게 느껴졌다. 그러던 중에 11월 한 달 동안 '라이크 다니엘 프로젝트' 기도회(이하 다니엘 기도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하루 세 번, 정해진 시간에 15분씩 이루어지는 온라인 기도회이다. 나는 일상의 기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하게 되었다.

초반에는 5명 정도 소수의 인원이 시작했다. 그러다가 인원이 점점 늘었다. 45명이 모였고, 함께 기도제목을 공유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이 만들어졌다. 함께 공유하고 싶은 기도제목이 있는 지체들은 오픈채팅방에 기도제목을 올리면 다 함께 중보기도 해주었다.

최근 아는 동생과 함께 노숙자 사역을 시작했다. 코로나19 때문에 노숙자들을 섬기는 손길이 줄어서 어렵다고 들었다. 우리는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나눠드리며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 노숙자 사역이 처음이었던 우리는 그분들께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시락 받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도 있었고, 말을 건네는 것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는



나혜정 자매(허브대학부)가 다니엘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다"고 고백했다.

분들도 있었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한 기도가 절실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역부터는 노숙자 사역에 대한 기도제목을 오픈채팅방에 올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많은 지체들이 실시간으로 중보기도해 주었고 개인 SNS로 응원도 해주었다. 노숙자 사역에 45명의 기도가 함께한다고 생각하니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지체들의 중보기도를 등에 업고 시작한 두

번째 사역은 은혜 그 자체였다. 여전히 도시락을 거부하고 '교회'라는 단어에 분노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분들도 생겨났다. 한 여성 노숙자를 전도해서 그 다음 날 예배를 함께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남자 노숙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기적 같은 일도 있었다. 다니엘 기도회 동역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몸이 불편한 이들에게는 치유를 선포하는 기도를 해드릴 수 있었고, 성경책이 필요한 이에게는 성경책을 선물하면서 기도해드리기도 했다. 처음에는 용기가 없어서 못 했던 일들을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힘입어 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노숙자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손이 떨릴 정도로 두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고부터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는 느낌이었다. 복음에 대한 담대함과 기쁨이 넘쳐났다.

11월 한 달 동안 진행된 다니엘 기도회는 나에게 일상의 기도를 회복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발견하게 해주었다. 그 섭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경이로운 사람만 알 수 있는 놀라운 일이었다. 중보자들을 붙여주시고, 그 중보자들을 통해 노숙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셨다. 두려움이 가득했던 나에게 복음에 대한 담대함을 심어주셨다. 이 모든 사역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크신 섭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계속될 온누리교회의 모든 사역과 프로젝트에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 나혜정 자매(허브대학부)



코로나19, '중보기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갈렙청년부 토요중보기도회

나는 갈렙청년부에서 다락방장과 토요중보기도회 부팀장으로 섬기고 있다. 나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감사하게도 어린 시절 혼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청년이 되었고, 여전히 교회에 잘 다니고 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훈련이 되지 않은 탓인지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았다. 주님은 이런 나를 아시고, 나를 갈렙청년부 토요중보기도회 기도인도자로 부르셨다.

기도 인도 차례가 돌아올 때마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다. 말씀을 보고, 고심하며, 기도문을 작성했다. 어려웠다.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훈련의 시간이었다. 어떤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영성훈련이기도 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갈렙청년부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여 토요중보기도회를 준비했다. 태풍이 치던 날도, 눈이 많이 오는 날도 도곡교육관에 모여 기도했다. 갈렙청년부 토요중보기도회에서 귀신 들린 자가 해방되고, 아픈 자가 살아나는 등 엄청난 일들도 목도할 수 있었다. 기적보다 기억에 남는 일은 매주 그 자리에서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갈렙청년부가 토요중보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평일 내내 직장 일로 지친 몸을 겨우 일으켜 토요일 아침을 깨우는 일이 고역일 때가 많았다. 그러나 중보기도회 자리에 도착해서 기도를 시작하면 영과 육이 살아나고, 성령님의 깊은 임재를 느낄 때가 많았다. 공동체와 열방을 위한 기도제목들을 우선해서 기도하다 보면 막상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았

는데 성령님은 그 부분까지 아시고 못 다한 개인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다.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덕분에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를 비롯한 모든 대면모임을 할 수 없게 된 지난 봄부터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 중보기도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처음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화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서로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아쉽고 어색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벽을 넘어 동역자들만 봐도 함께 하는 기쁨과 든든함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엡 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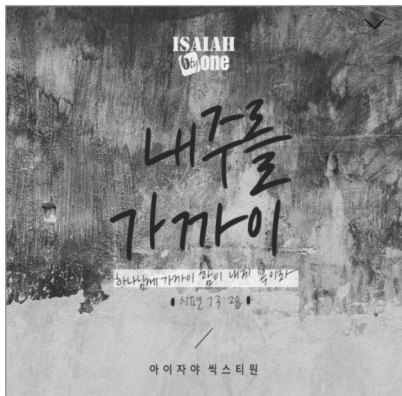
나는 중보기도가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사랑은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느낄 수 있을 때가 많다. 그러나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중보대상자를 알지 못하더라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육이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위로하신 것처럼, 중보기도의 자리에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그 역할을 나눠주신 것 같다. 중보기도의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속한 공동체에서 묵묵히 중보기도하고 있을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한다.

/ 김민하 자매(갈렙청년부)



찬양 들려주는 목사

마중(meet)과 나중(later)



‘내 주를 가까이’
아이자야 씹스티원(Isaiah 6tyone)

어느 날 유튜브에서 예배 영상을 보다가 ‘아이자야 씹스티원(Isaiah 6tyone)’이라는 팀의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양 영상을 보게 되었다. 예전에도 봤던 영상이었는데 그 날따라 잠깐 보고 지나칠 수 없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주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주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이 내게 “가까이 나아오라”고 건네신 음성이었던 것 같다. 그 찬양 영상을 통해 임재가 강하게 느껴졌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여 동안 기도 시간마다 이 찬양을 틀어 놓고 반복해서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갔다. 그때 주신 감동 몇 가지를 나누고 싶다.

첫째, 예배자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복으로 여겨야 한다. 예배는 계속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자의 마음에는 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열망이 일어난다.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다 보면 예배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계속 주님께로 나아가게 된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했던 발걸음을 회개하고, 지금 주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게 된다.

또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주님이 너무 가까이 계셔서 놀랄 때가 있다. 주님이 멀리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다시 눈물 짓게 된다. 그 눈물 가운데 드리는 고백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내 영원한 소원은 주님을 가까이하는 것입니다”이다. 예배는 보좌를 향한, 십자가를 향한, 지성소를 향한 거룩한 순례이다. 예배자는 예배드릴 수 있음을 축복이라 여긴다.

둘째, 예배의 자리에 주님은 항상 먼저 오셔서 기다리신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실 때 우물가에 먼저 오셔서 기다리셨듯이 예배의 자리는 항상 주님이 먼저 오셔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맞이하신다. 그 임재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마

음으로 가까이하지 않은 예배자라면 이런 음성이 반드시 들린다.

“왜 이제야 왔나...”

이 음성이 예배자에게 들린다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심에 감사한 마음에 앞드리게 된다. “다음부터는 제가 먼저 와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헌신하게 된다. 사랑은 미안함이다. 전심이고 싶고, 그 래야 하는지 알지만 잘되지 않아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다. 전심은 빈틈이 없는 마음이다. 예배자의 마음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흠 있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틈 있는 마음을 채워서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 같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모하셔서 항상 먼저이신 주님 앞에 오늘도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앞드리는 것이 예배이다.

셋째, 예배자에게 큰 죄가 있다면 주님을 가까이하지 않은 죄다. 죄의 시작이 어디인가? 주님을 가까이하지 않음에 있다. 주께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것은 죄로 향하겠다는 것이다. 흐르는 물결에 노를 젓지 않으면 떠내려가기 마련이다. 주와 멀어지겠다는 마음을 품고 고백하지는 않지만, 주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떠밀려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든다. ‘이 좋으신 주님을 어떻게 멀리할 수 있을까?’ 그러나 임재 밖에 있으면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당연해진다.

예배자는 지금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죄를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세상은 늪과 같아서 주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린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주님을 가까이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관념이 아니라 삶의 실재가 될 때 비로소 예배자의 삶이 거룩한 동행의 삶이 된다. 주 없이도 살만한 인생은 주님을 찾지도, 가까이하지도 않게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 이유는 임재의 부요함을 누구보다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친밀하게, 긴밀하게, 은밀하게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이다.

예배는 마중(meet)과 나중(later)의 문제다. 내게로 오시는 주님을 마중 나갈 마음이 있는가? 그 마중을 나중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주님을 맞으러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나중은 없다.



이상진 목사
(수원 온누리교회)

볼 만한 기독교 콘텐츠

〈천로역정〉의 감동을 해설한다!



유튜브 천로역정TV.

지 않은 성도든 누구든지 가볍지만 깊이 있게 시청할 수 있는 콘텐츠다. 영상은 5~10분 내외로 주제에 대한 설명, 뮤지컬 해설,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질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순예배나 가정예배에서 활용하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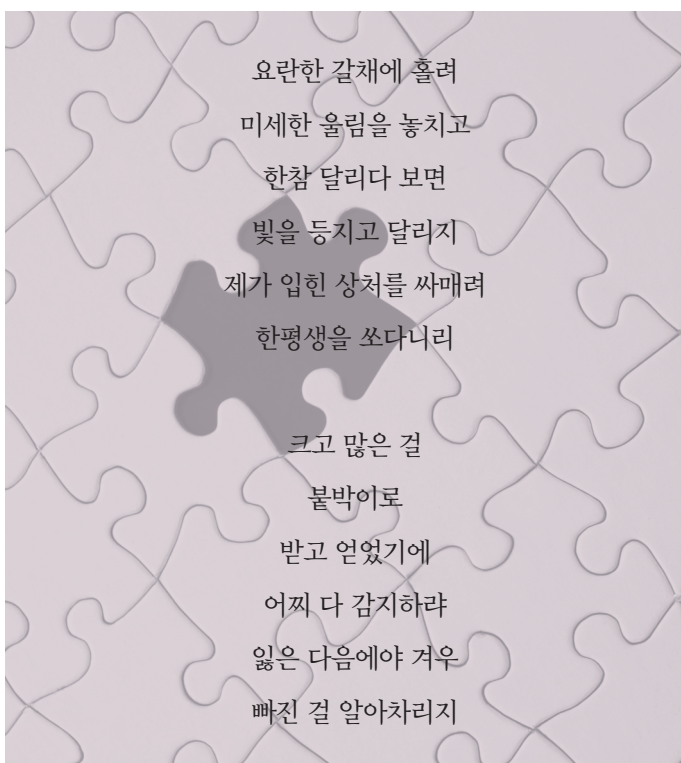
서은영 연출은 “그동안 천로역정을 연출하고 공연하면서 받았던 은혜와 감동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다”면서 “하늘성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달리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천로역정은 영국 작가 존 번연의 작품으로 주인공 크리스천이 하늘성을 향해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기독교 서적이다.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으로 통하는 작품이다.

문의: 02-988-2258

이원로 장로가 들려주는 시

잃은 다음



누적관객 12만 명, 누적공연 1,200건 돌파.

뮤지컬 천로역정이 지난 7년 동안 달성한 기록이다. 그 엄청난 공연과 해설을 이제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다. 뮤지컬 천로역정 제작사 조이피플이 ‘천로역정TV’를 개설했다. 뮤지컬 천로역정 공연영상을 해설하는 채널이다. 뮤지컬 천로역정의 제작 배경부터 뮤지컬 장면에 담긴 의미까지 세세하게 풀어준다. 매주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해서 해당 영상과 해설을 업로드 하고 있다. 전도자, 무지, 세속현인,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 선의 등이 그 주제이다.

뮤지컬 천로역정을 관련한 성도든 관람하



2020년 임직예배에서 임직자들이 안수기도를 받고 있다.

“섬김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2020년 권사 및 안수집사 임직예배

하나님 나라 일꾼 558명이 새로 세워졌다. 지난 12월 5일(토)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드린 2020년 임직예배에서 권사 206명(권사 196명, 명예권사 10명), 안수집사 352명(남자 135명, 여자 217명)이 임직을 받았다.

2020년 임직예배는 당회서기 정진호 장로의 대표기도, 크룩스의 특순, 이재훈 담임목사의 설교, 서약, 안수기도, 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될 것이다’를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했다.

이 목사는 “포도원에서 일한 그 자체가 일꾼에게 주어진 보상이 될 때 먼저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면서 “섬길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김정희 권사(마포공동체)는 “세상과 교회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임직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조재현 집사(영등포구로공동체)는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최완석 집사(강촌공동체)는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성도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직자들은 임직자스쿨에서 영성훈련, 새벽예배, 독후감 제출 등 다양한 훈련 과정을 이수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낙태클리닉 소장에서 생명운동가로!

영화 ‘언플랜드’ 12월 17일 개봉

영화 ‘언플랜드’가 12월 17일 개봉한다. 영화 ‘언플랜드(unplanned)’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라는 뜻으로 낙태클리닉 소장에서 생명운동가로 변한 애비 존슨의 실화를 담고 있다. 애비 존슨은 미국 최대 낙태클리닉 ‘가족계획연맹’에서 8년 동안 성실히 일하며 최연소 소장에게 오를 만큼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녀는 8년여 동안 무려 2만2천 건이 넘는 낙태에 가담했는데 그 일이 옳은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 낙태 수술실에 들어간

애비 존슨은 낙태의 실상을 목격하고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생명운동가로 돌아서게 된다.

낙태 실태를 밝힌 영화 ‘언플랜드’는 미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개봉 당시 전 세계 팬덤을 보유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캡틴 마블’을 누르고 박스오피스를 강타할 정도로 큰 흥행을 거뒀다. 이 영화 개봉 이후 미국 9개 주에서는 낙태 반대 법안을 도입시킬 정도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다.

단체상영 문의: 010-9228-3229

‘아라비안 라이트(Arabian Light)’

바라카 및 아부다비 주재 한인을 위한 성탄콘서트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아주 특별한 성탄콘서트 ‘아라비안 라이트(Arabian Light)’를 준비하고 있다.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일부 공개)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바라카 및 루와이스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 아부다비 주재 가족,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초청한 이웃 및 직장 동료들이다.

성탄콘서트 아라비안 라이트에서는 가족들과 떨어져 몸도 마음도 지친 근로자들과 그 가족, 이웃과 직장 동료들을 초청해서 위로와 격려, 복음을 전할 예정이다. 대니정(색소폰 연주자), 가수 이무송, 노사연, 신인선(미스터 트롯 출연) 등이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메시지를 담은 특별 영상도 상영한다. 설교는 김태완 목사(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한다.

김태완 목사는 “전도사역본부의 도움으로 귀한 성탄콘서트를 준비하게 되어 감격스럽다”면서 “바라카와 아부다비 주재 한인들이 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부천 한사랑공동체 김장 나눔 행사

부천 온누리교회 인근 거주 탈북민에게 전달

부천 한사랑공동체가 지난 11월 25일(수)과 26일(목)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배추 150여 포기를 김장해서 부천 온누리교회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부천 한사랑공동체는 김장 김치와 함께 마스크, 마스크줄, 수면 양말이 담긴 전도용품도 선물했다.

부천 온누리교회 한사랑공동체는 올해로 9년째 김장 나눔 행사를 이

어오고 있다. 탈북민 이웃들에게 맛있는 김장김치를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는 일거양득 전도행사로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로 9년째 김장나눔 행사를 하고 있는 김혜경 목사(부천 한사랑공동체)는 “재료가 많이 올라서 김장을 할 수 있을까 염려되었지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마음을 모았다”면서 “탈북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영선 기자

수원 성경일독학교 참가자 모집

수원 온누리교회 ‘성경일독학교 신약편’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1년 1월 4일부터 3월 12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30분씩 진행된다. 신약 성경 5장씩을 읽고

정리한다. 신구약 중간사, 사복음서, 사도행전1, 사도행전2, 서신서1, 서신서2, 요한계시록 특강, 총정리 등을 주제로 과정이 이어진다. 회비는 무료 문의: 010-9283-7871

차세대 새친구 온라인 등록

차세대 온라인 가족카드 이용

차세대사역본부가 새친구 온라인 등록을 시작한다. 차세대에서 제작한 ‘차세대 온라인 가족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등록을 희망하는 학생 및 보호자는 온라인(https://forms.gle/khhe9wSjKyDCHvRp8)으로 신청하면 된다. 차세대 온라인 가족카드에는 소속 캠퍼스, 학생 정보, 대표 보호자 정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만 14세 미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등을 입력해야 한다.

차세대 전임교역자가 새가족 정보를 확인하고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하면 담당 교역자가 학생(보호자)과 상담을 하고 나서 부서 편입 등의 절차를 이어간다.

차세대 교사는 nCare에 학생정보를 등록하고, 새친구 구반 과정을 실시한 다음 소그룹 반 배정 등을 한다. 문의: 02-3215-3521



*차세대 온라인 가족카드 신청 QR

두란노어머니학교 개설 신청

2021년 상반기 두란노어머니학교 개설 신청을 받는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싶은 교회와 단체가 대상이다.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개설 신청을 하면 된다.

두란노어머니학교는 ‘일반 어머니학교’, ‘열린 어머니학교’, ‘특수 어머니학교’, 해외에서 선교사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해외 어머니학교’ 등이 있다.

문의: 02-2182-9114

두란노어머니학교 ‘어머니 P.P기도회’

두란노어머니학교 ‘어머니 P.P(Power Prayer)기도회’가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 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두란노어머니학교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면 된다.

‘어머니 P.P기도회’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문의: 02-2182-9114

세네갈 본나바 마을 농업사업 재개

딸기, 피마, 파프리카 등 고소득 작물 재배

NGO 더멋진세상이 세네갈 본나바 마을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농업사업을 재개했다.

이번 농업사업에서는 본나바 마을에서 딸기, 피마, 파프리카, 방울 토마토 등 고소득 작물을 재배해서 농가의 소득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3년 동안 재정 1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에는 시범하우스에서 50명의 농업 후보자를 대상으로 모종관리 및 작물관리 기초교육을 실시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본나바 마을 주민들의 소득이 향상되고 주민들 스스로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기술을 습득할 때까지 계속 교육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임직자 간증



/ 박경희 집사(관악금천공동체)

2012년부터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다. 중국 단둥 온누리교회 간사로 6년 정도 섬기다 한국에 들어왔다. 그리고 큰아들을 천국에 보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 기도했다. 내가 임직을 받을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기도 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직분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면 임직을 받겠다고 결심했고 임직자스쿨에 참가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임직자스쿨은 생소하지만 재미있었다. 성도들 간의 나눔은 없었지만 강의 자체에 집중할 수 있었다. 강의를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과정이 좋았다. 온누리교회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부분이 많았다. 전도본부와 온누리복지재단의 사역들은 생소한 것들이 많았다. 교회를 잘 모른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기도할 게 많아져 좋았다. 그동안 눈에 보이는 사역들만 기도해왔는데 앞으로는 교회 구석구석을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임직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대한 애정이 더 커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졌다.

임직자스쿨에서 세 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썼는데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리

나는 다섯시 반에 도착한 일꾼

라>는 책이 감명 깊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를 말씀하셨다. 큰아들이 희귀병과 싸울 때 나는 하나님께 따졌다. 지난달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전신마비를 극복하고 있는 박위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따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책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봤다. 자녀를 잃고 형제를 잃은 아브라함의 가정은 나의 가정과 다를 게 없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하며 나의 믿음도 한층 성숙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임직식 당일 여자 안수집사 대표로 임직증서를 받았다. 임직증서를 받기 위해 강단에 오르며 내가 왜 수백 명의 임직자들을 대표해서 임직증서를 받는지 하나님께 물었다. 이재훈 담임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보상”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포도밭 일꾼이라면 나는 오후 다섯시 반쯤 도착했을 것이다. 직분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기쁨으로 섬길 것을 다짐한다.

■ 에스라 프로젝트 참가자 간증



/ 이동주 성도(강동 온누리교회)

2017년 12월 고관절 치환수술 후에 썼던 글을 먼저 나누고 싶다.

“흑한을 거친 뒤에야 따듯함의 온기로 꽃망울이 맺힌다고 합니다. 흑한으로 인해 두 손을 모아봅니다. 흑한의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길목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한 발 내딛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선하시고 진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을 뜨겁게 만지시고, 상한 곳을 새롭게 창조하시옵소서. 원하는 것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신다 하시는 말씀을 믿고, 고난을 약 삼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기다림으로 받을 크고 비밀한 것이 있다 하심에 기다립니다. 흑한의 겨울을 지나며 따듯한 봄의 향기로 소중하게 피어날 꽃망울을 기다립니다.”

에스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기까지 쉽지 않았다. 2017년 수술 후에도 장기간 치료되지 않았던 엄지손가락과 손목의 통증 때문이었다. 양치하는 것도, 설거지와 청소를 하는 것도, 운전하는 것조차 손목보호대를 하고서야 잠깐 가능했다. 장시간 펜을 쥐고 손을 움직여야 하는 필사를 하기에는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훗날 주실 크고 비밀한 것을 기대하

치유와 회복의 은혜

며 무작정 필사를 시작했다.

말씀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이 가장 편안하고 좋았다. 때로는 설레기도 하고 마음속 깊은 어딘가가 울렁이기도 했다. 예레미야서를 필사하면서 인생이 더 깊이 해석되었다. 새롭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가슴 설레는 시간이 많아졌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하게 되고, 말씀에만 시선을 고정하며 사모하게 되었다. 성경필사를 이어가며 말씀 안에서 나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다. 보호대 없이는 생활할 수 없고, 평생 손을 아끼며 살아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는데 보호대 없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사소한 집안일은 물론 운전하는 것까지 지금은 통증이 없다. 손목보호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내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자유함을 허락하신 것은 신실한 본보기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한다.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방향을 선택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나눌 수 있기를 사모한다. 예수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창조신앙아카데미 수료 간증



/ 김유진 성도(하모니공동체)

과학은 창조질서를 드러내는 도구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하나씩 바라보며 강의들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섬세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리도 놀랍도록 말씀하시는데 보고 싶지 않다고 하고, 듣지 않으려는 인간의 완악함을 또 다시 느끼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알리고 놀라운 것들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떠올리게 됐다. 과학은 신앙을 받쳐주기 위해 사용된다는 강의를 들을 때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다. 첫 강의에서 딱따구리와 폭탄면지벌레를 보면서 무엇 하나 그냥 만들지 않으신 놀라운 창조주의 손길을 떠올려 보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기에 그에 따른 설계도가 있다는 사실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롬 1:20).

로마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

심을 만물을 통해 보아 알고, 그의 창조를 부인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지식의 반감기’라는 용어를 통해서도 과학은 발전에 따라 내용이 거듭 수정되지만,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모든 것이 주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다.

종과 종류에 대해 공부할 때는 생명이 생명이지만 태어나고, 돌연변이로 진화는 나빠지면 나빠질 뿐이지 좋아질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하신 것을 보시며 “가장 좋았다”고 하셨다. 결국 과학은 창조질서를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조별모임을 통해서 요즘 아이들에게 창조를 설명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교 교육이 우리의 신앙을 점점 잃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가 깨어 있고,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다짐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관찰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을 간구한다.

■ 성령수련회 참가자 간증



/ 장미진 성도(부천 온누리교회)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코로나19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등 변화되고 있는 환경에 익숙해져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크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갈증을 느끼던 때에 성령수련회 광고를 듣게 되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성령수련회에 참여하고 싶었다. 그러나 번번이 기회를 놓쳐서 아쉬웠다. 몇 개월 전부터 주말 업무를 쉬게 되었고, 또 사고로 몸을 조금 다쳐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안전하게 마음을 쉴 수 있는 쉼터에 들어서듯 편안하게 이번 성령수련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성령수련회에서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어디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살펴볼 기회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제별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주시는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만나는 시간이 될 거라는 기대가 생겼다. 강의 제목처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된다는 소망이 내 마음에 차오르기 시작했다. 목사님 말씀처럼 이

제 내 삶에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표피를 찢고 예수님의 생명을 이식해서 새로운 피조물 즉, 예수님의 눈이 되게 하시기를, 믿음의 은사를 기초로 다른 은사들도 열리기를 기대하게 되었다.

사고로 다친 부분을 치료하느라 분주하기도 했고, 통증과 고통이 심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화면 뒤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강의를 들어야 했다. 그런데 성령수련회 마지막 조모임과 기도를 마치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고, 성령수련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통증 없이 잠을 자게 되었다. 치유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다.

지치고 힘든 중에 성령수련회를 통해 충전되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계신다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나도 목사님처럼 동일한 성령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다.

조장님의 나눔처럼 봄날 내리는 햇살처럼 따사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한다.

장로칼럼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조성수 장로
(김포공동체)

20년 전 선교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그때는 선교라는 말만 들어도 부담스러웠고 무겁게 느껴졌다. 어쩌다 선교사님을 만나면 지갑을 열어서 헌금해야 하고,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듣는 날은 꼭 작정헌금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선교는 행복하다.”

온누리교회에 와서 달라진 나의 선교관이 다. 선교에 동참하면서 나의 인생이 달라졌다. 그때부터 조금씩 나와 가정이 달라졌다.

NGO 더멋진세상 실행위원으로 섬긴 지 벌써 만 9년이 지났다. 이제는 해외 재난 소식을 들려오면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그곳으로 달려간다. 재난당한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을 생각하면 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난현장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준비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 2014년 4월 발생한 네팔 대지진 때의 일이다. 대부분의 구호단체들이 비교적 접근하기 쉽고 국제단체들과 연합해서 일하기 좋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로 집결하고 있었다.

그때 NGO 더멋진세상은 네팔 정부도 신경 쓰지 못하고, 수도 카트만두에서 10시간 이상 더 가야 하는 지역에서 긴급구호를 시작했다. 긴급구호를 시작한 지 5일이 되던 날, 지진으로 마을 전체가 무너진 고레다라마를 주민들이 애타게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웃리치팀 모두 고된 사역으로 몸이 너무 힘들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 지진이 나서 길이 막혔다. 청년들과 함께 맨손으로 돌을 걷어내

고 길을 만들면서 고레다라마로 향했다. 현장은 정말 참혹했다. 마을의 건물이 거의 무너져있었고, 주민들은 여진에 시달리며 몸을 떨고 있었다. 더한 고통은 굶주림이었다. 온몸에 상처가 무성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고레다라마에 도착할 때까지 그 마을을 섬기기로 결심했다. 그 이후 수년 동안 진심을 다해 고레다라마를 섬겼다. 무너진 집과 학교 보건소를 세웠고, 여러 아웃리치팀이 방문해서 주민들의 필요를 돌봤다. 그 결과 마을 주민 80% 이상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마지막 시간에 힌두교 지도자들이 와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들이 “고레다라마를 찾아와줘 너무 고맙고 이제는 교회와 잘 연합하겠다”고 말할 때 큰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고 고백하고 싶은 또 하나의 일은 라오스 땀뽕 긴급구호 때 일이다. NGO 더멋진세상 아웃리치팀이 긴급구호품을 싣고 사륜차로 들어가기 힘든 마을로 들어갔다. 그곳은 마을 주민 전체가 불교신자였는데 단 세 가정이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 세 가정이 모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NGO 더멋진세상이 찾아와서 마을 주민들을 살렸다고 간증했다. 재난지원 본부가 있는 시내까지 너무 멀고, 물도 다 빠지지 않아서 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모두 낙심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곳에서 NGO 더멋진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그날 이후 마을주민들이 더 이상 크리스천 세 가정을 핍박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보내는 선교사, 섬기는 선교사, 찾아가는 선교사, 선교사들의 친구이다. 나는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나가고 싶다. 나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 왜냐하면 하용조 목사님이 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처럼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다.

권사칼럼

전적인 은혜이자 인도하심



강경숙 권사
(관악공동체, 온누리 전도학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누리전도학교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서빙고, 양재, 부천 온누리교회가 ‘온누리 통합 1기 전도학교’를 온라인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유튜브를 활용해서 비대면 강의를 하고, 시스코 웹엑스로 개별 모임을 했다.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우리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염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전도학교를 멈출 수는 없었다. 복음의 산실인 온누리전도학교를 이어가기 위해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며 힘을 모았다. 전도학교가 진행된 지난 8주 동안의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온누리전도학교는 많은 이점이 있었다. 전도학교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때는 시간의 제약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이 온라인으로는 많이 참여하셨다. 바다 건너 미국과 터키에서도 전도학교 강의를 들은 성도들이 있었다. 동영상 강의를 자신의 일정에 맞춰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강의 후에 진행되는 조모임도 조장과 훈련생들이 서로 시간을 맞춰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유동적으로 진행되는 강의와 모임 덕분에 참여도가 높아졌다. 개강 초기에는 과제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하던 훈련생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의 간증들을 보내왔다. 강의를 듣고, 조장들과 조모임을 하면서 복음의 절대적 진리와 능력 앞에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진다는 고백들이었다. 서빙고, 양재, 부천 온누리교회가 처음으로 한 팀이 되어 온누리전도학교를 진행하게 된 것도 정말 큰 은혜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흩어진 줄 알

았던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이게 되었다. 어떤 방법으로든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온라인 온누리전도학교에서 특별한 전도 방법이 소개되었다. 훈련생들의 간증에서 나온 전도 방법이다. 전도하고 싶은 누군가에게 “나는 너를 전도하고 싶어. 너와 나눌 대화를 준비했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겠니?”라는 편지를 보내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마음의 준비를 시킨 다음 식사 교제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다. 꽤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번 학기에는 가족 구원의 열매가 많았다. 전도학교에서 익힌 준비된 복음을 조원들의 중보기도를 받으며 담대하게 선포해서 가족 구원의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사례들이 많았다.

온라인 온누리전도학교를 진행하면서 모두 공감한 것이 하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성숙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당연했던 대면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다.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었던 복음의 넉넉함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받은 선물도 있다. 농익은 과일의 단맛 같은 하늘의 기쁨을 선물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달콤함을 한가득 안겨주셨다. 쉽지 않을 것 같던 온라인 온누리전도학교에 더 큰 열매와 은혜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은 분명 악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

성도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받은 자들이다. 소원을 주신 아버지께서 어찌 일하지 아니하시겠는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린 도구인 것을 잊지 말자!

신앙에세이



이지원 목사
(북누리, 천양사역 공동체)

학창시절 과학시간에 ‘빛’에 대한 내용을 배웠다. 우리가 보는 모든 색깔이나 형체들은 가시광선이 라고 했다. 하지만 가시광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전부는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적외선, 자외선, X선과 같은 빛이 존재한다. 과학시간 빛에 대해 배우면서 내가 알게 된 것은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공기와 바람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들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물음표

를 던진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분명히 실재하시는 분이다. 크리스천들도 눈에 보이면 있다고 말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있다. 바로 ‘은혜’이다. 삶이 계획하고 기도한 대로 흘러가고 평탄하면 은혜가 임한다고 말하고, 삶이 어렵고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시절을 맞이하면 은혜가 떠났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대학 시절 나는 학교 인근에 살고 계신 큰이모 댁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 집 근처 작은 지역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셨던 큰이모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 담임목사님의 사무실인 목양실을 청소하셨다. 어느 날 청소하기 위해 목양실에 들어간 순간 큰이모의 눈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보였다. 먹음직스러운 큰 천혜향이었다. 순간 큰이모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천혜향 한 알만 먹으면 좋겠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그런 생각을 잠시 하다가 청소를 마치고 집에 오셨다. 그날 오후 늦게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온 나는 이모께 인사를 드리고 방으로 향했다. 그런데 문 앞에서 무엇이 생각났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그 무언가를 꺼내 이모께 말했다. “이모, 이거 드세요.”

큰이모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가방에서 꺼내 이모께 드린 것이 바로 천혜향 한 알이었기 때문이다. 이모께서 목양실을 청소하던 그 시각 나는 강의실로 가던 길에 우연히 만난 후배가 제주도에 다녀왔다고 건넨 천혜향 한 알을 받고 가방에 넣고 까맣게 잊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방으로 들어가다 그 천혜향 생각이 나서 이모께 드렸다. 큰이모는 “요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도 않으시고 아무 신경을 안 쓰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천혜향 한 알 먹고 싶어 하는 것까지 챙겨주고 계시니 아무래도 괜찮다”라시며 나와 함께 그

천혜향을 나눠 먹었다. 그 천혜향은 하늘이 내린 향기 바로 은혜였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앞은 홍해가 막고 있고 뒤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는 상황에서 절망하고 원망하며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한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눈에 보이는 이집트의 군대와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만을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보라는 말씀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코로나19 확산과 정치, 경제적으로 어두운 나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여호와와 구원 말이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생명 번성의 축복

성경에 보면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생명의 출산에 참여하고, 놀라운 역사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모세의 부모들입니다. 모세가 보여준 믿음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히 11:23).

모세의 부모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했다면 모세는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환경이 가져다주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경제적 위기 등이 우리를 무섭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환경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보아스와 롯이 보여준 믿음의 결단을 본받아야 합니다.

“내가 또한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자 롯을 내 아내로 사서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유산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가운데서나 그의 성문에서도 없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그러자 장로들과 성문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집에 들어올 그 여자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신이 에브라함에서 잘되고 베들레헬에서 이름을 떨치기 바랍니다.’”(룻 4:10~11).

보아스와 롯의 결혼식에서 주고받은 말입니다. 롯은 모압

여인입니다.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헬으로 돌아온 여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입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기업을 무르고, 그 가정을 책임지는 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있었지만 강제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책임만 지는 결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책임지는 결혼을 선택한 것입니다.

롯이 자기만 생각했다면 나오미를 따라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면 롯의 고향인 모압에서 사는 것이 훨씬 편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지만, 당시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특별히 모압 여인이 베들레헬이라는 작은 유대 마을에 와서 산다는 것은 온갖 시선과 차별을 당할 각오를 하는 걸음이었습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었다면 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와 롯의 만남은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와 롯을 통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돌이켜 보면 결혼은 믿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와 롯처럼 믿음으로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셋째, 요셉과 마리아가 보여줬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눅 1:38).

당시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수치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

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매우 위험해 보이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면 복이 임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마리아를 의심해서 끌고자 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필요한 용기가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도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작은 생명으로 올 때 헤롯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가들이 학살 당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요셉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이 모든 삶의 여건과 어려움과 장애물을 뚫고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호하셨고,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한 생명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만이 소중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모든 생명이 소중합니다. 육신의 생명이 왜 중요합니까? 그 육신의 생명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임함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백성들이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 모두 동참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많은 위험, 두려움, 악조건을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역사상 인구가 완전히 붕괴하면 다시 회복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이내에 반등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가정이 나서야 합니다. 이 일을 최고의 기도제목으로 여기고 생명이 번성하는 축복을 회복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이들이 더 많아지도록, 한국 교회 성도가 더 많아지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선교지에서 온 편지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중동 H국에서 문안드립니다.

2019년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이 2020년 연말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희생자들이 생긴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타격이 매우 심각하고 큼니다.

중동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H국은 감사하게도 중동 국가 중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코로나19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확진자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규제들을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주위 현지인 사역자들과 기독교인 중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생겨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접했습니다. 옮겨울

이 위기가 될 것 같은데 계속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란노 3기 훈련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난 8월 말 시작한 두란노 3기 훈련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다섯 명의 형제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배우고, 주님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주말에는 형제들과 함께 외부로 나가 3일 동안 수련회를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다시금 새기고, 주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일주일 앞당겨 어제 주일예배를 끝으로 이곳에서의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두란노 3기 훈련을 받은 형제들이 지난 주 각자 고향으로 출국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자신의 처소에 잘 정착해서 앞으로도 주님을 충성되게 따르고, 전도하며,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달 재활병원에서 재활하고 계시던 황디

모데 선교사의 아버지께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집단확진자들이 나왔는데, 황디모데 선교사의 아버지도 감염되었습니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격리병원으로 이송되었고 3주가 넘는 시간 동안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완쾌되었고 원래 계시던 재활병원으로 전원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황디모데 선교사의 아버지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를 받는 동안 재활을 못하셨기 때문에 인지능력과 신체 상태가 많이 퇴보된 것 같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재활 과정을 다시 시작하셨는데 황디모데 선교사의 아버지께서 이전에 가지셨던 소망을 잃지 않고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는 현지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계 3:14~22)을 나누었습니다. 영적 안일함 혹은 자족감에 빠져서 자

신의 영적 실체를 보지 못하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주님을 삶의 자리로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식탁의 교제를 하도록”(계 3:20) 권면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주님과 친밀한 식탁의 교제를 회복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란노 3기 훈련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간 형제들이 전도하며 제자 삼는 삶을 살도록, 황디모데 선교사의 아버지께서 소망을 잃지 않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저희와 현지 크리스천들이 날마다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 황디모데, 송애나 선교사(중동 H국)

길 위의 노래

특별한 위로가 필요한 올겨울, 선물 같은 찬양 콘서트가 찾아옵니다

12월 13, 20일(주일) 오후 3시 20분 방송



12월 13일

코로나19로 사역을 떠나야만 했던 선교사,
여름철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과 교회를 위로합니다.

출연 이무송&노사연 부부, 바리톤 김주택

12월 20일

유난히 힘들었던 2020년,
각자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우리 모두와 함께합니다.

출연 박기영, 범키

<길 위의 노래>는 CGNTV 웹사이트,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CGNTV 길 위의 노래 

2021



2021년 CGNTV 말씀달력 판매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길 바라며
CGNTV 말씀달력이 제작되었습니다.
연말에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 가격 12,000원
- 구입처 온누리교회 두란노서점, 택배판매 가능 (택배비 별도)
- 문의 02-796-2243